

현대차그룹 '대학 연극·뮤지컬 페스티벌'

## 미래 공연예술인 총망라… 5개월 대장정 성료

대학생 공연예술인들의 꿈의 무대인 '제7회 현대차그룹 대학 연극·뮤지컬 페스티벌'이 5개월 간의 대장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달 31일 서울 블루스퀘어 아이마켓홀에서 관계자와 관람객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현대차그룹 대학 연극·뮤지컬 페스티벌' 시상식을 개최했다.

2013년 시작해 올해 일곱 번째를 맞이한 대학 연극·뮤지컬 페스티벌은 현대차그룹과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10여개 문화예술단체가 후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 대학 공연예술 경연 대회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51개 대학 74개 팀, 2300여명 학생들이 참여해 5개월간 치열한 예선을 거쳤고, 12개 우수 팀이 최종 본선에 올라 8월 말까지 대학로 서경대 공연예술센터 무대에서 경연을 펼쳤다.

시상식 행사는 본선 참가 학생들의 자율 기획공연과 현역 뮤지컬 배우들의 갈라쇼,



'제7회 현대차그룹 대학 연극-뮤지컬 페스티벌' 시상식 참가자들이 행사 종료 후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문별 시상, 학생과 현역 배우들의 합동 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시상식에서는 극동대 연극 '레드 올랜더스'와 한양대 뮤지컬 '히폴리토스 ON THE BEAT'가 연극과 뮤지컬 부문 대상으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팀당 6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현대차그룹은 대상을 포함해 현대차그룹

사장상,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장상 등 총 13개 부문(단체 7개, 개인 6개)에 걸쳐 총 33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대학 연극·뮤지컬 페스티벌을 통해 6년간 1만여명의 참가 학생들과 소통하며 공연예술 분야의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해왔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CJ대한통운

#### '안전한 등하굣길' 캠페인

CJ대한통운이 2학기 개학시즌을 맞아지역사회와 손잡고 '안전하고 행복한 등하굣길 만들기'에 나선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8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도척초등학교에서 광주시경찰서,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하

고 행복한 등하굣길 만들기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고 30일 밝혔다. 교문 앞에서 등굣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투명 안전우산을 전달하고 '도로 횡단 3원칙'을 기재한 사고 예방 열쇠고리를 배포하며 교통안전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어린이들에게 전달된 투명 안전우산은 투명 캔버스를 적용해 시야 확보가 용이하도록 했고, 2면은 형광띠로 차량 불빛을 반

사해 빗길 등하고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어 CJ 대한통운 임직원과 녹색어머니회는 어린이들이 평소 자주 다니는 학교 앞 등하굣길 구간에서 보행자와 차량을 안내하는 등 교통 정리도 실시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규정속도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등하굣길 함께 지켜주세요' 등 안전법규준수를 유도하는 현수막도 설치해 운전자의 안전문전의식을 고취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오늘의 운세

9월 2일 (음 8월 4일)



36년생 오른손이 하는 걸 원순도 모르게 선행. 48년생 변화의 기운이 있으니 웃차림에도 신경 써라. 60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야 일이 잘 마무리. 72년생 사랑에는 언제나 약간의 망상이 따른다. 84년생 낯선 땅에서 병황.



37년생 일의 시작은 신용에서 비롯되니 작은 약속도 소중히. 49년생 능력이상의 일을 맡아 종일 마음이 불편. 61년생 한아름에 솜옷이 생기나니 주책. 73년생 새식구가 들어오니 근심이 더한다. 85년생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



38년생 지나친 운동을 삼가고 과식을 주의. 50년생 과대포장으로 난처한 지경에 처한다. 62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74년생 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재물도 들어온다. 86년생 희로애락을 나타내지 마라.



39년생 생각지 못한 일로 심신이 고달픈 하루. 51년생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명심. 63년생 초대 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는다. 75년생 선봉에 나서게 되나 타인의 질투를 받는다. 87년생 가족과 금전문제로 속상한 일이 생긴다.



40년생 하나님 뿌리고 열 개를 얻는 날. 52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덕은 잊는 법이니 서운해 마라. 64년생 사업이든 직장이든 성실하면 좋은 결과. 76년생 물이 피곤한 날이니 휴식이 필요. 88년생 신용이 있는 사람과 거래가 순조롭다.



41년생 불행한 마음이 들 때는 가족을 생각. 53년생 오르지 못할 나무는 차단 보자 마라. 65년생 아니다 싶으면 바로 돌아서라. 77년생 훈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89년생 조급한 결정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42년생 대회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잘 듣는 것. 54년생 어제 본 광경을 잘 떠올리면 해결책이 있다. 66년생 말은 총알보다 빠르고 강력하니 말조심. 78년생 정서적 지지와 배려가 상대에게 큰 힘이 된다. 90년생 마음 따로 몸 따로.



43년생 먼저 칭찬하고 용서하길. 55년생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준비. 67년생 외출 시 이륜차를 특히 조심. 79년생 좋은 씨를 뿐 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 91년생 친구는 내가 선택한 또 다른 가족이다.



44년생 머리만 말고 정보를 수집. 56년생 소중한 것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상대에게 고통. 68년생 결혼은 2인 3각 경기이니 호흡이 중요. 80년생 목표를 다시 점검하고 수정. 92년생 비운 뒤에 땅이 더 굳어짐을 명심.



45년생 모든 일은 내 뜻대로 움직인다. 57년생 돈벼락을 맞아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69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81년생 삼재팔난이니 음주주의와 말조심하자. 93년생 동이 트기 시작했으니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46년생 좋은 일이 있으나 조심해야 한다. 58년생 팔짱을 끼고 어유 있게 관망. 70년생 자신의 형편을 살피고 보호를 해줘야 할 때. 82년생 지난 세월의 역할 힘이 쑥 풀린다. 94년생 정보를 서로 얻어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47년생 비가 들은 구름은 표가 나기 마련. 59년생 길 가다가 타박상을 입을 우려가 있으니 조심. 71년생 원칙을 벗어난 투자는 낭패 보기 십상. 83년생 옳은 일은 눈치 보지 말고 행동. 95년생 정치 종교적인 인생에 끼어들지 마라.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텀魄!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루어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5		6		
1	6		8		2	3		
			4			7	1	
3	7	4						
		9	7	1				
			5	4	7			
2	3		1					
5	8		2	1	3			
7	4		9	1	3			

1				8	7	6		
7	2			9	5			
6				6	3	9	4	
			6		3	9	4	
6	1	7	9			8		
5				2	7	8	1	
8	4	3	7	8	1	2	5	
6	5	4	2	1	6	9	3	

스도쿠 정답								
1	9	5	7	3	4	6	2	
3	2	4	1	8	6	9	5	
7	5	6	8	3	5	6	7	1
2	4	9	7	9	4	2	8	5
6	3	1	7	9	4	2	8	5
5	8	7	2	5	3	9	4	
4	6	5	3	2	7	8	1	
8	7	2	6	1	9	5	4	3
9	1	3	4	5	8	7	2	6

문제 제공=

## '빅데이터 경제'의 명과 암



### 기자 수첩

胡 민 영  
(파이낸스&마켓부)

빅데이터가 곧 자산이 되는 오늘이다. 수많은 디지털 데이터가 새로운 제품·서비스 창출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이다.

금융업에서도 이는 크게 다르지 않다. 전문가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금융결제 이력이 부족한 소비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들이 데터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다.

예를 들어 대환대출 등 소비자금융자를 제공하는 펀테크사업자는 법 개정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씨파일러(금융이력부족자)를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대안신용평가 체계의 확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금융기관 간 고객 데이터 공유가 가능해진다면, 금융정보가 부족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평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빅데이터 경제의 장미 빛 전망을 말하기 이전에, 그에

따른 보안 문제의 우려를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명목적으로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맞춘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구했지만, 실상은 그 중 개인정보의 활용과 유동에 대한 부분만 가져온 데 불과하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 처리 등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면, 개인의 건강 정보·유전정보 등 생활에 해당하는 영역이 과학적 연구라는 명목으로 민간 보험사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 정보주체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배제효과가 일어날 우려가 없지 않다.

물론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과거부터 끊임없이 발생했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되돌아봤을 때, 행안위의 주장에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피해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는 만큼, 데이터 활용 당사자들의 경각